

IVYclub Magazine



IVYclub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

18호

January, 2015

www.ivyclub.com

엑소인터뷰
아이비클럽 제작노트
아이비패션
스타인터뷰 VIXX
한예준



아이비클럽 매장으로 빨리 방문해 주세요~ 아이비클럽의 다양한 혜택!

혜택1. 하이퍼센트 중학생 내신강좌 무료이용권

KYO WON 교원 하이퍼센트
새 학년 새 마음, 하이퍼센트와 아이비클럽이 응원합니다!
2015 하이퍼센트 신학기 내신 강좌 15DAYS

수강 대상: 중1~중3 학생 | 유효 기간: ~2015.03.31(화)

우동생의 비법, 족보닷컴
• 족보닷컴 기술문제 이용권 (5권)
• 태블릿(PC/아이패드) 2명
• GS25 모바일상품권(100명)
• 배베로 기프트콘(100명)
• 비타500 기프트콘(100명)
추첨! 특별한 혜택

혜택2. 듀오백 30% 할인권

아이비클럽X듀오백 GO!GO! 페스티벌
아이비클럽 입GO! 듀오백에 앉GO! 30%

<듀오백 30% 의자 할인 쿠폰>
사용기한: 2015년 3월 31일까지 / 사용문의: 02-6204-2525

혜택3. 무이자 할부 혜택

- 신한카드** 최대 5개월 무이자 할부(~2/28)
- 삼성카드** 최대 4개월 무이자 할부
- 현대카드** 최대 5개월 무이자 할부(~3/31)
- 롯데카드** 최대 5개월 무이자 할부(~2/28)
- 국민카드**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 외환카드**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BC카드는 무이자할부대상에서 제외 ※법인카드/체크카드/기프트카드 제외 ※5만 원 이상 결제 시 적용 ※백화점/마트 결제 시 제외

QUESTION AND ANSWER OF EXO

엑소 멤버들이 답했다.

엑소에게 궁금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엑소 멤버들이 직접 이야기한다.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정상에서 있는 슈퍼 아이돌 엑소의 이야기.



Q. 2015년 위시리스트는?

A. 행복해지는 것.

Q. 이번에 예정된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면?

A. 노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

Q. 롤모델이 있다면?

A. 비 선배님.

Q. 올 겨울, 백현이 추천하는 패션 아이템은?

A. 마스크!

Q. 백현이 못먹는 음식은 오이?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A. 닭볶음탕을 가장 좋아한다!

Q. 나는(내가) 엑소에서 제일 OO 이다!

A. 손이 예쁘다!

엑소 백현 / 황소자리, 920506

BAEK HYUN

Q. 세훈이 엑소엘이라면 어떤 멤버의 팬이 되고 싶은가?

A. 세훈이 팬

Q. 여전히 엑소의 막내이지만 처음보다 많이 성숙해졌는데, 스스로 어른이 되었다고 느낄 때는?

A. 나도 모르게 멤버들 먼저 걱정하고 무슨 일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고 할 때.. 아직 많이 모자란 아이일 뿐이다.

Q. 지금 시간 여유가 생긴다면 갖고 싶은 취미는?

A. 예쁜 곳을 많이 가보고 싶다.

Q. 엑소 패셔니스타 세훈의 머스트해브 아이템은?

A. 비니와 시계

Q. 어떤 포즈를 취할 때 가장 멋있다는 생각이 드나요?

A. 무표정으로 그냥 있을때

Q. 나는(내가) 엑소에서 제일 OO 이다!

A. 막내

OH Sehun

엑소 세훈 / 양자리, 940412



Lay

엑소 레이 / 천칭자리, 911007

- Q. 한국에 와서 가장 어렵다고 느꼈던 점, 또는 가장 좋았던 점은?
A. 한국 오면 새로운 걸 배워서 좋다.
- Q. 겨울이 가기 전에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A. 눈 사람 만들기
- Q. 잠들기 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것은?
A. 부모님께 전화
- Q. 지금까지의 앨범 수록곡 중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A. 'Thunder', 멋있어서!
- Q. 레이에게 EXO와 EXO-L이란?
A. 성장하는 것? 모든걸 함께하고 함께 성장하는 존재 같아요.
- Q. 나는(내가) 엑소에서 제일 OO 이대!
A. 작곡을 잘한다!

Q.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로 예능에서 자주 보기 힘든데, 고정으로 출연하고 싶은 예능이 있다면?
A. 불후의 명곡, 전에 한번 출연을 해본 적이 있는 데 가수 선배님들의 무대도 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Q. 바쁜 촬영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아이비클럽 촬영장에서 항상 파이팅 넘치는 첸! 그 기운의 원동력이 있다면?
A. 그 기운의 원동력은! 멤버들과 함께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생 해주시는 스태프 분들이 감사하기 때문!

Q. 첸이 추천하는 겨울 노래는?
A. 정말 좋은 노래들도 많지만 저는 에릭 베넷의 "the last time"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Q. 공향패션 이슈메이커가 된 첸! 자신만의 머스트해브 아이템은?
A. 전에는 클러치 백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최근엔 신발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Q. 나는(내가) 엑소에서 제일 OO 이대!
A. 나는 엑소에서 제일 발이 작다!!!!!!!



엑소 첸 / 처녀자리, 920921

CHEN



SUHO

엑소 수호 / 쌍둥이자리, 910522

Q. 가족회의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는?

A. 당연히 초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는 게 처음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이죠.

Q. 가요계의 막내들에서 이제는 가요계의 정상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세로 인정받고 있는데 소감은?

A. 대세란 말은 정말 부담감도 크고 그만큼의 책임감이 따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세..오르고 있는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데뷔 초와 현재, 스스로 가장 달라진 부분은?

A. 저는 데뷔 때보다도 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달라진 건 저 자신보단 저에게 더욱 잘 대해주시는 많은 분들이죠. 그에 대해 더 감사히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Q. 나는(내가) 엑소에서 제일 OO 이다!

A. 웰빙이다^ ____ ^

Q. 바쁜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관리법은?

A.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기르고, 쉬 수 있을 때 꼭 쉰다.

Q. 자유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A. 커피나 베이커리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

Q.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 있나?

A. 말을 잘 안하는 습관;;

Q. 망형의 초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겨울철 피부 관리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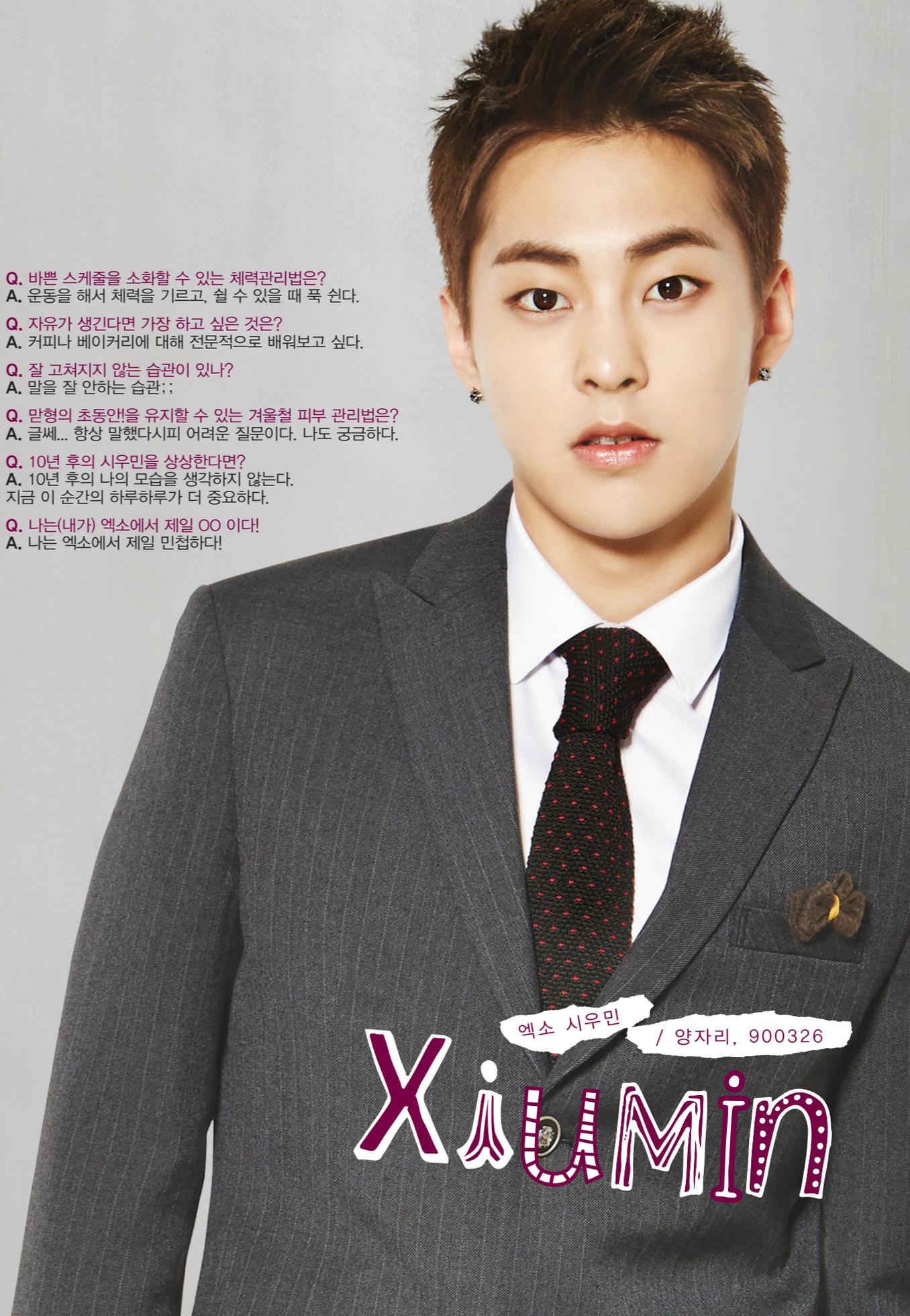
A. 글썸.. 항상 말했다시피 어려운 질문이다. 나도 궁금하다.

Q. 10년 후의 시우민을 상상한다면?

A.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의 하루하루가 더 중요하다.

Q. 나는(내가) 엑소에서 제일 OO 이다!

A. 나는 엑소에서 제일 민첩하다!



엑소 시우민 / 양자리, 900326

Xiumin

D.O.

엑소 디오 / 염소자리, 930112

Q. 2014년 최고의 연기들 1위로 뽑혔는데, 또 다른 욕심나는 1위 타이틀이 있다면?

A. 뭐든 그냥 1위로 뽑힌다면 감사합니다...

Q.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준 연기에 대해 멤버들이 함께 모니터링을 해주는지?

A. 모니터링 보단 그냥 같이 재미있게 보는 편이다.

Q. 학창시절 방학숙제는 꾸준히 or 개학 전날 한 번에!

A. 개학 전날 한번에.

Q. '카트'로 성공적인 스크린 데뷔로 호평을 받았는데 다음엔 어떤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은가?

A. 지금은 어떤 작품이어도 재미있을 것 같다.

Q. 나는(내가) 엑소에서 제일 OO 이다!

A. 내가 엑소에서 제일 당구를 잘 친다!



엑소 찬열

사수자리, 921127

Chan Yeol

Q. 교복 모델 선발대회 출신 찬열. 아이비클럽에서 3년째 교복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데 소감은?

A. 졸업을 한지 4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아이비클럽을 통해 교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게 기분 좋고 즐겁다.

Q. 눈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추천!
A. Musiq Soulchild "someone"

Q. 해외 일정이 많은데 특별히 애착이 가는 곳이 있다면?

A. 일본에서 쇼핑을 너무 즐겁게 해서 일본이 애착이 가고, 중국은 많이 가서 익숙해서 좋다.

Q. 다른 멤버로부터 욕심나는 재능이 있다면?

A. 카이의 춤이 탐난다.

Q. 찬열에게 한 달의 겨울방학이 주어진다면?

A. 유럽투어를 가고 싶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 가보고 싶다.

Q. 나는(내가) 엑소에서 제일 OO 이다!
A. 키가 크다!





엑소 타오 / 황소자리, 930502

Tao

- Q. 2015년 새해 다짐
A.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 Q. 타오에게 한 달의 겨울방학이 주어진다면?
A.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 Q. 아직 적응하기 어려운 한국 문화가 있나?
A. 한국예절
- Q. 못 먹는 음식이 있다면?
A. 다 잘 먹어요.
- Q. 스케줄 이동 중 차 안에서 주로 하는 것은?
A. 음악 감상
- Q. 나는(내가) 엑소에서 제일 OO 이다!
A. 무술을 잘한다!



엑소 카이 / 염소자리, 940114

K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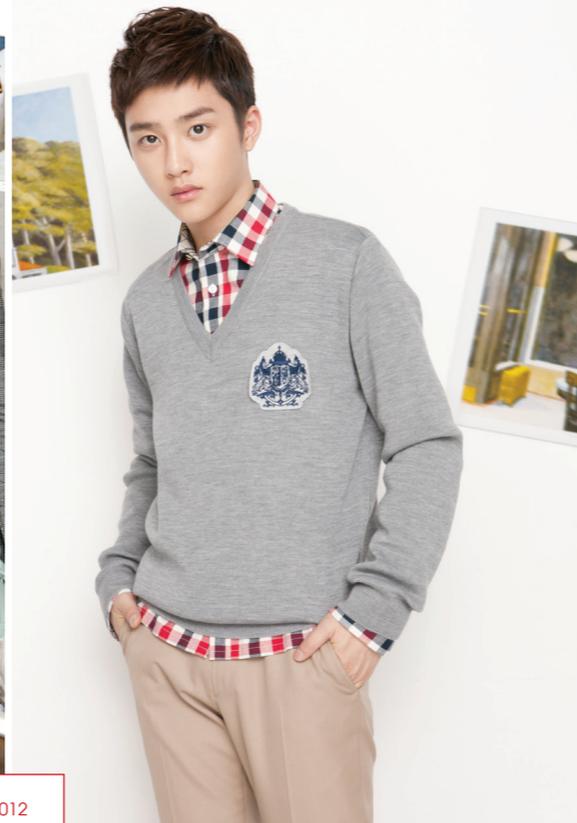
- Q. 솔로나 유닛 활동을 한다면 어떤 방식,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가?
A. 엑소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다른 카이만의 색다른 모습.
- Q. 지금 당장 떠나고 싶은 곳이 있다면?
A. 따뜻한 섬 나라
- Q. 최근에 마지막으로 본 영화는?
A. <카트>랑 <닌자거북이>
- Q. OO멤버의 이런 점, 탐난대!
A. 첸 형의 긍정적인 마인드
- Q. 요즘 빠져있는 것은?
A. 축구
- Q. 나는(내가) 엑소에서 제일 OO 이다!
A. 나는 엑소에서 제일 잠이 많다!



2012
EXO with
IVYclub

EXO와 함께한 IVYCLUB 촬영 히스토리

2012년 가을부터 함께 한 엑소와 아이비클럽. 시간이 흐른 만큼, 아니 그 보다 훌쩍 성장해 버린 슈퍼스타 엑소의 모습을 함께 해 온 아이비클럽에서 그간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상큼하고 뜻뜻했던 EXO와의 첫만남

아이비클럽과 엑소가 함께 한 시간을 돌아보면 첫 만남인 2012년 7월의 어느 더운 여름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가을학기 촬영을 위해 만난 엑소는 더위에 아랑곳 하지 않고 생기 발랄하고 열정적인 모습이었다. 투명하리 만치 하얀 피부를 가진 리더 수호는 유독 붉은색이 잘 어울려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하게 했다. (지금도 여전히 붉은색 옷을 너무나 잘 소화해주고 있다. 어느 누가 붉은색을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을까?)

첫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 가득한 모델 포스를 아낌없이 뽐내던 카이가 막내라인이라는 사실에 놀랐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며 촬영을 함께 해 보니,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까지 가지고 있어 카이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 19세 미성년자이던 막내 중의 막내 세훈은 뜻뜻하고 귀여운 데다가 흰칠하고 잘생기기까지! 세상에 둘도 없을 완벽한 막내라는 생각이 들었다. 캐주얼한 니트와 체크셔츠를 입고 찬열, 백현과 함께 촬영할 때는 막내다운 귀여움이 배가 되어 매력을 한껏 발산! 소품으로 준비된 과자를 뜯어도 되냐고 묻는 세훈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모두들 괜찮다고 고덕 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형들과 사이좋게 과자를 나눠 먹으며 해맑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두 달 뒤인 9월,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신인 아이돌의 매력을 한껏 뽐내고 있던 엑소를 2013년 신학기 (겨울)화보 촬영을 통해 만날 수 있었다. 촬영하는 동안 서로에게 더 나은 포즈와 표정을 제안하며 이전보다 한층 여유로워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음 촬영을 위해 옷을 갈아입고 나온 백현 역시 촬영 중인 다른 멤버들을 뿌듯하게 바라보던 얼굴이 생각났다. 서로를 지켜봐 주고 응원해주는 의리 있는 EXO!



KAI

카메라 앞에서 강아지처럼 해맑게 웃는가 하면, 시크한 컨셉에서는 돌변하여 범접하지 못할 카리스마를 뽐내기도 하는 카이. 자타 공인 아이비클럽이 인정하는 최고의 모델!

2013
EXO with
IVYclub



- 1 소품인 타자기에 관심을 보이는 백현과 세훈
- 2 리더 포인트의 자켓으로 더욱 시크해진 백현
- 3 카메라를 보는 초롱초롱한 눈빛! 우유 빛갈 엑수호!



2014
EXO with
IVYcl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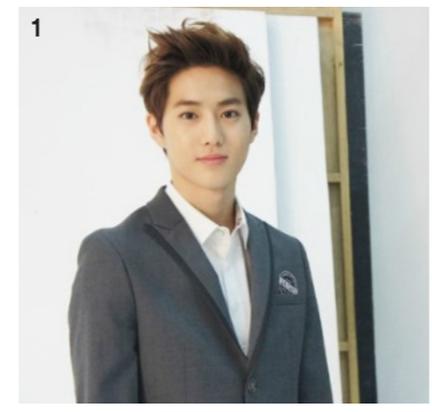


끊임없이 솟아나는 Endorphine (엔돌핀)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며 촬영에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엑소는 바라만 보아도 엔돌핀이 솟아나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촬영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쾌활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모든 스태프들에게 인사를 하고, 의상을 갈아입고 대기하는 순간까지 엑소의 시간 곳곳에 에너지가 가득했다. 보통 이른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촬영이 이어지는 데, 누구보다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엑소 멤버들이 간간히 피곤하고 지쳐 보일 때도 있지만, 촬영에 들어가면 그들이 가진 에너지를 한껏 뽐내며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4년 신학기(겨울) 화보 촬영에는 순록, 백곰 등의 다양한 동물 인형이 준비되었는데 엑소 멤버들 모두 관심을 보이고 귀여워했다. 그중에서 **찬열**은 인형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쉬는시간 마다 인형 근처에 머물렀는데, 새하얀 백곰 인형과 함께 놀고 있는 **찬열**에게 카메라를 들이대자 귀엽게 포즈를 취하던 모습까지! **찬열**이 얼마나 동물(인형)을 좋아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이날 순록 인형과 함께 찍은 사진을 **찬열**이 직접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다) 게다가 촬영을 기다리는 **백현**이 심심하지 않도록 옆에 가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모습에 다정함이 엿보이기도 했다. (물론 짓궂은 장난도 자주 친다) **카이**는 동물 인형의 입에 캐릭터볼펜을 끼워놓고 사라지기도 했는데 안전한 듯 보이지만 역시 막내다운 장난기가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동물 인형 외에도 여러 개의 헬륨풍선을 사용하는 컨셉도 준비되었는데, 스튜디오 천장이 매우 높아 풍선을 놓으면 가지고 내려오기 힘든 터라 스태프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을 때, **백현**을 비롯한 몇 명의 멤버들이 풍선을 놓을 듯 장난을 치기도 했다. 이때 촬영한 화보는 가로 1M 크기의 예쁜 포스터로 제작되었는데, 매력을 뽐내며 완벽한 핏까지 자랑하는 엑소 덕에 포스터가 더욱 빛을 발했다.



- 1 교복 패션의 정석을 보여주는 수호!
- 2 컵케익 + 시우민 = 큐트란 이런 것!
- 3 익살스러운 포즈를 취하는 찬열과 헨



XIUMIN

엑소의 만형이자 최강 동안을 맡고 있는 시우민. 표정을 바꿀 때마다 팔색조처럼 변하는 그의 매력!! 화사하게 웃을 때면 아이처럼 해맑은 귀여움을 발산하고, 포스 있는 무표정으로 카메라를 노려볼 때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카리스마 가이로 변신!

언제나 촬영에 최선을 다하는 EXO

2014년 가을 화보 촬영은 엑소가 아이비클럽 친구들에게 고백하는 컨셉으로 이루어진 촬영이니만큼 현장은 사랑스럽고 귀여운 분위기로 가득했다. 영화 러브액츄얼리의 대표적인 장면이 연상되는 스케치북 고백 컨셉의 **찬열**, **세훈**, **카이**는 아이비클럽의 스타일리시한 스트라이프 자켓으로 한층 더 웅장해 보이는 모습으로 현장 스태프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공개되지 못한 사진 중에는 가을과 어울리는 드라이플라워 (말린 꽃)을 소품으로 이용한 것이 있었는데, 가을의 분위기가 한껏 느껴지면서도 로맨틱하고 달콤한 무드가 표현된 멋진 사진이었다. 엑소가 표현하는 가을이란 역시 뭔가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다.

이러진 씬에서는 '내! 착한 교복'이라는 글자가 적힌 피켓을 멤버들이 나누어 들고 촬영했는데, 글자의 순서를 바꿔서 재밌는 말을 만들어 장난치기도 했다. 매력 넘치는 각각의 멤버들이 함께 모여 만드는 문장이 더욱 생동감 있고 힘 있게 느껴진다. 이날 촬영에는 컬러풀한 스쿠터도 소품으로 준비되었는데, 올라타서 운전할 하는 듯 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고, 기대어 멋스러운 포즈를 취하기도 하였다. 특히 **시우민**은 스쿠터 앞에 서서 무릎을 구부린 채 손으로 시동을 거는 듯한 포즈를 취하며 장난을 쳤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엑소 중에 제일 막내라고 해도 믿을 법 한 귀여운 모습이었다. 한 가지의 소품으로도 이렇듯 다양한 매력을 어필하는 엑소를 보고 있다면 지루할 틈이 없다.

엑소의 멤버들은 모두 장난기가 많은 것 같았는데, 마치 10대 소년들을 보는 것처럼 발랄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그 장난기 많고 발랄한 성격 덕분에 다양한 표정연기와 포즈를 완성하여 완벽한 컨셉의 화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럭셔리한 컨셉 뿐만 아니라 발랄한 파티 분위기까지 빈틈없이 소화하는 **2015년** 신학기(겨울) 화보 촬영에서의 엑소! 노블(Noble)컨셉으로 진행된 이날의 촬영. 클래식한 스타일의 나무 소재 가구와 빈티지한 축음기 등으로 연출된 세트에서 멋진 포즈와 표정을 지어준 엑소는 고급스러운 아이비클럽의 이미지와 너무 잘 어울려서 '역시 엑소! 역시 아이비클럽!'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했다. 과연 여러 번의 화보 촬영을 거치면서 더욱 맛있어지는 모습에 그들의 성장이 앞으로 더 기대된다. |



D.O.

연기자 도경수로도 활약하고 있는 엑소의 디오. 최근 두 작품에서 모두 고등학생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 냈는데, 연기를 통해 더욱 표정이 풍부해진 듯 한 그의 미소가 더 멋져 보인다. 앞으로 또 어떤 노래와 연기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무척 궁금해진다.

가격은
확 낮췄네!!

우리 학교는
아이비클럽 목표는 입어!
야야야!!

아이비클럽의
다리가 길어보이는
칼링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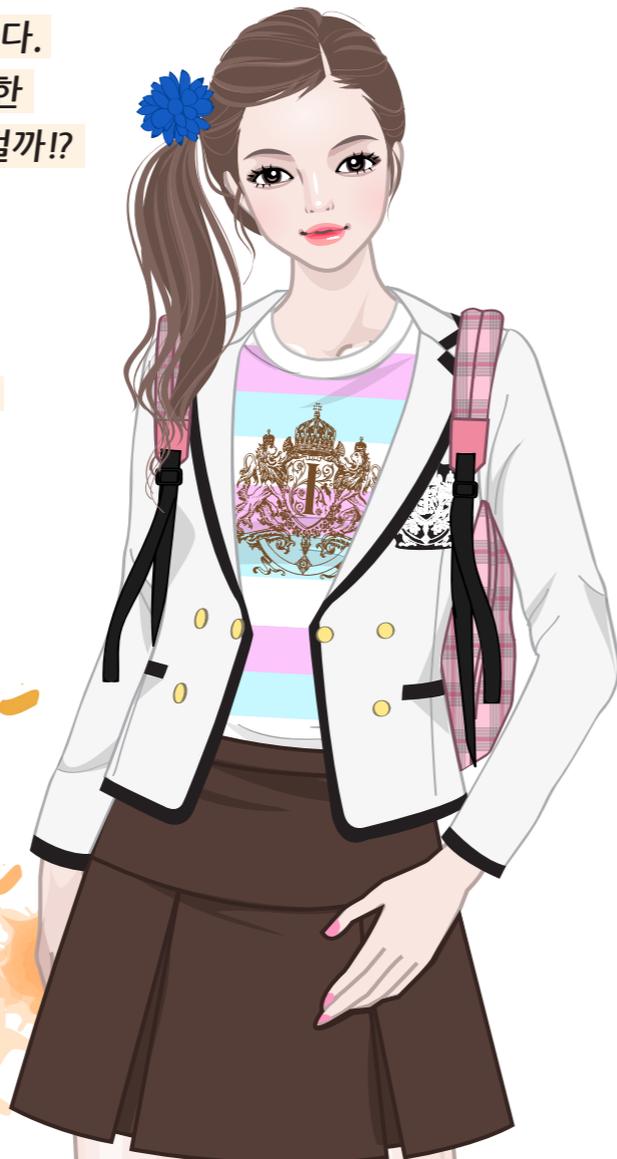


착한가격 | 완벽한 품질 | 100% 국내생산

IVY + FASHION Item

손발이 푹푹 얼고 이가 떨리도록 추운 날엔
두툼한 패딩 점퍼나 입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이 무시무시한 강추위에서 우리를 지켜줄 만한
스타일리시하면서도 따뜻한 아이템은 없는 걸까!?

칼바람 부는 추운 날씨에는 따뜻하게 입는 건 필수!!
하지만 춥다고 막 껴입으면 뚱뚱해 보이고, 얇게 입기에는 추운 요즘
아이비클럽 친구들을 위한 스타일 코디법을 공개합니다.
빠른 트렌드 속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스타일리쉬함과 보온성을 두루
갖춘 아이비클럽 머스트해브 겨울아이템 코디법!! 더 이상 옷장 앞에서
고민하지 말고 추운 날씨, 센스 넘치는 겨울 패션 주인공으로!



패딩점퍼 / 후드

슬림하지도 너무 루즈하지도 않은 적당한 핏감을 유지시켜 줄 노카라 패딩입니다.
깔끔한 실루엣과 기본적인 컬러가 어우러져 데일리 아이템으로 즐기기에 좋은 심플한 스타일이고, 도톰한 이너를 착용하여도 활동성이 좋은 아이템입니다.



트렌치 코트 / 스웨터

심플한 라인에 멋스러움과 고급스러움이 함께 느껴지는 트렌치 스타일입니다. 길이가 넉넉하여 베이직한 룩에 걸쳐 입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코트 자체만으로 포인트가 되어 이너에 스웨터를 심플하게 입는 것만으로도 스타일을 한껏 업 시킬 수 있습니다.



무스탕 코트 / 스웨터

멋스러운 겨울 코디를 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스카이블루 무스탕 코트입니다.
무스탕 아이템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어 아우터 하나만으로도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영덩이를 가리는 기장으로 체형을 커버해주며 보온성이 더해져 더욱 따뜻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핏감이 넉넉하여 도톰한 이너와 함께 착용하여도 편하고 활동성이 좋습니다.

스타일리쉬한
아이비클럽 교복을
더욱 센스 있게 입는 법
너희들도 따라 해봐~!!
- by IVYCLUB -



Must Have Item



넥워머



니트 장갑

IVYclub + Mix casual

Must Have Item



니트비니



레더패치 니트 장갑



야상 점퍼

고급스러운 리본 퍼가 돋보이는 깔끔한 디자인의 야상점퍼입니다. 엉덩이를 충분히 덮는 길이에 허리 안쪽으로 스트링이 달려있어 불편함 없는 다양한 핏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지퍼로 탈부착 가능한 모자는 베이직하지만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멋스러운 코디를 연출합니다.

아이비클럽 교복에 다양한 윈터 웨어를 믹스 매치해서 톡톡 튀게 코디해봐! 뻘하지 않은 나만의 스타일 완성!

- by IVYCLUB -



스타디움 점퍼

오랫동안 입어도 질리지 않고 하나쯤 소장하기 딱 좋은 스타디움 점퍼입니다. 패딩의 보온성을 가지고 있으며 멋스러운 실루엣까지 모두 갖춘 스마트한 아이템으로 캐주얼한 스타일부터 포멀한 스타일까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고 멋스러운 코디를 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코트 / 스웨터 / 목도리

깔끔한 디자인의 오버핏 코트는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아이템! 두터운 니트를 매치하여도 답답하지 않고 멋스러운 패셔너리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절감을 느낄 수 있고 보온성까지 높여주는 목도리를 매치하면 금상첨화!



VIXX

정상에서 다시 한 걸음

더 이상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최근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에러(Error)'를 선보였던 빅스는 공중파와 케이블 음악방송에서 다섯 번의 1위를 거머쥐었다. 그동안 자신들의 콘셉츄얼한 모습을 끊임없이 변주하며 발전해 온 여섯 남자는 이제 정상급 아이돌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쉽고, 부족하며, 더 이루고 싶은 것이 많다고 말하는 이들은 스스로에게 주는 점수엔 인색하기 그지없다. 대신, 오랫동안 자신들을 지지하며 함께해 온 팬들에게 선뜻 만점을 주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정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한들 단단한 내면의 심지로 오랫동안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게 분명해 보였던 빅스.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말하며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고 말한 이들은 정상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스타인타류 VIXX

글/ 이정화 / 사진/ 구혜정 / 제공. 텐아시아(www.tenasia.co.kr)

Q 보통 작사 작곡할 때 어떤 스타일인가. 한 번에 몰아서 집중하는 지 아니면 틈틈이 하는지.

라비 : 되는 대로 한다. (엔 : 늘 하고 있다.) 내가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분 전환하고 싶은 날이 아닌 이상 웬만해선 작업하고 있다. 하다 보면 짧게 끝낼 수가 없다. 생각나는 가사를 적어두는 것 외에는 거의 작정하고 하는 식이라고 할 수 있다. (Q. 공동 작사가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엔 어떻게 하나?) 랩이 아닌데 공동으로 들어갈 땐 때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 전체적인 틀은 작사가님이 정하고 내가 거기에 많이 맞춰간다. 랩은 백 프로 다 내가 만들고, 사실, 우리에게 곡이 들어올 때 랩 부분은 작사가님이 아예 자리를 비워 두신다. (Q. '청춘이 아파'의 경우엔?) 회사 작곡가 형님의 곡인데,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 하하.

홍빈 : 그렇게 믿고 맡기시면서 (라비에게) 5개를 써오라고 하신다. 하하. (Q. 5개를 쓴다는 건?) 느낌 별로 여러 버전을 만드는 거다.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듭하는데도 다양한 버전의 가사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여러 가지를 보고 여러 생각을 한다는 건데, (라비는) 진짜 대단하다



Q 레오도 계속 작곡을 하고 있지 않나. 빅스를 아예 모르던 지인이 7월에 한 콘서트를 보고는 라비가 만든 '메모리'와 레오의 자작곡 '차가운 밤에'가 좋다고 말했다. 다음날 음원사이트에서 찾아봤는데 음원으로는 나오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레오 : 계속 열심히 만들고 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말이다. 가수가 된 이유가 누군가의 노래를 듣고 내가 감동을 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행복해진다. 더 좋은 노래, 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다.

Q 그 콘서트에서 팬들이 무대를 마친 빅스를 향해 '앵콜'이 아닌 '사랑해'를 외치기도 했다. 예쁜 응원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참에 팬들 자랑을 한 번 해보자.

라비 : '내 여자 친구가 최고야'라는 심리가 있듯이 우리 팬들은 내가 봤을 때만큼은 언제나 최이다. 그리고 관계자분들이나 회사 식구들에게 항상 좋은 얘기를 듣는 모습을 봐서 그런가, 되게 자랑스럽다. 음악방송 같은 데에 팬들이 왔을 때 관계자분들이 "너희 팬들 진짜 조용하다, 질서 잘 지킨다"란 말을 해주면 기가 많이 산다.



'빅스의 팬'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팬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관계자 분들도 우리를 좋게 봐주신다. 그런 사소한 것부터 해서 우리가 팬들과 암묵적으로 정해 놓은 규칙 같은 것도 잘 지켜 준다. 하나 얘기하자면, 음악방송이 끝나고 나면 그 날 와준 팬들이 너무 고마워서 항상 인사를 하고 싶다. 그런데 최근에 팬이 된 분들이 우리가 창문을 열 때 가까이 다가온다거나 하시는데, 그런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어서 아쉽게도 인사를 못 해주고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기존의 팬들이 질서를 잡아주기도 한다. 스타라잇(빅스의 팬클럽명)만의 문화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자랑스럽다.

Q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팬들도 늘고 인기도 많아지고 있다. 이럴 때 '나'는 변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대우하거나 하는 것들이 변하면 자칫 그 변화에 휩쓸릴 수도 있다. 혹시, 자신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

홍빈 : 심오하게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을 수가 없는 게 내가 나를 모니터했을 때 만족하지 못하는데 주위에서 잘해준다고 해서 기고만장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나 자신에게 떳떳하지 않는데 그런 태도를 보일 수는 없다.

가수가 된 이유가 누군가의 노래를 듣고 내가 감동을 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행복해진다. 더 좋은 노래, 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다.



엔 : 변하는 건 당연한 것 같다. '슈퍼 히어로'때의 빅스와 '에러'로 활동하고 있는 빅스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다. '슈퍼 히어로'때의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무조건 먼저 경험을 해 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는데, 이전 각자의 음악도 알고 각자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발언권이 생겼다. 이런 좋은 변화는 계속 있겠지만 앞에서 나온 말처럼 기고만장해지는 빅스는 없을 거다.

Q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칭찬이든 채찍질이든 한마디를 한다면?

켄 : 레오 형 말대로 변화는 있지만 변함없는 켄이 되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할 거 열심히 하면서 멤버들하고 같이 뭉쳐서 화이팅해라. 사랑한다!

엔 : 학연아, 다 잘 될 거야.

홍빈 : 홍빈아, 네가 널 보면 알 거야. 알아서 해. (웃음)

혁 : 혁아, 부모님들이나 가족한테 연락 자주 하고. (일동 : (고덕거리는 중)) 왜 이렇게 다들 공감해요? 흐흐. 어색하더라도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애정표현 많이 하자. (라비 : 그래, 전화 해 버릇해. 꼭. / 홍빈 : 휴대폰에 우리 이름부터 바꿔.)

라비 : 라비아, 네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있는 그 미래에 모든 것들이 다 이뤄질 거야. 화이팅.

레오 : 택은아, 항상 미안하고... 더 행복하자. 난 내 자신에게 채찍질을 많이 하는 편이고 탓도 많이 하는 편이다. 나한테 항상 1순위는 내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좀 미안하다. 이제는 나를 1순위로 두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여유 있어지려고 한다. |



빅스(VIXX)의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텐아시아(www.tenasia.co.kr)에서 확인해주세요!

한예준, 자세히 보면 더 예쁜, 소년

글. 이정화 / 사진. 구해정
제공. 텐아시아(www.tenasia.co.kr)



‘소년의 정체를 밝혀라!’ 누구라도 그의 얼굴을 한 번 보게 된다면, 강렬한 호기심이 일 것이다. 대체 누구이며,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지. 신인 배우, 한예준. 올해 나이 열아홉의 이 소년은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에서 스무 살의 천재 사진작가 하라온을 연기하며 연기 신고식을 치르게 됐다. 모델로 활동했을 당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마스크와 신비로운 눈빛으로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만큼, 배우로서의 첫발에도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제 막 순백의 도화지에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기 시작한 소년은 과연 어떤 그림을 보여줄까?

My Name, 한예준

소속사의 이사님이 재주 있는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신 따끈따끈한 예명이다. 직접 작명소에 다녀오셨다고 하더라. 본명은 김민준. 화할 민(旻)에 준걸 준(俊) 자를 쓴다. 이번 JTBC ‘선암여고 탐정단’에 김민준 선배님과 함께 출연하기도 한다.

나이는 열아홉, 현재 고3이다. 빠른 1996년생이라 친한 친구들은 거의 다 스무 살이다. 생일은 1월 11일. 중학교 때 영국이랑 미국에서 3년 정도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졸업이 한 해 늦어졌다.

맑은 사람은 외국 모델 중엔 콜 모어? 하하. 처음 보는 사람들이 혼혈이 아니냐고 자주 물어보시는데, 아니다. 토종 한국인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미아삼거리 쪽에 살았고, 2학기 때 대치동으로 이사 와서 쪽 살고 있다.

편한 사람들이랑 있으면 장난을 많이 건다. 여덟 살 아래의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과자도 뺏어 먹고 그런다. 으악, 막상 말하려니 너무 유치하네. (웃음) 친구들이랑 있을 땐 말도 많이 해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편이다. 물론, 형들이나 누나들, 일 직인 자리에서 만난 분들에게 많이 맞추려고 하고 많이 들으려고 한다. 그냥 놀 때랑은 또 다르다.

밥은 한 5분이면 다 먹을 수 있다.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를 먹는데 성격이 좀 급해서인지 빨리, 많이 먹는다. 음식은 포크랑 칼 들고 격식 차리며 먹는 거 말고 밥이랑 찌개, 고기 구워먹는 거 좋아한다. 아니면 피자, 햄버거, 치킨! 족발도! 평생 한 가지만 먹어야 한다면, 족발을 먹을 거다. 하하. 그래도 패밀리 레스토랑 CF는 한 번 찍어 보고 싶다. (먹여주는 시늉을 하며) 아~ 이러면서. (웃음)



한예준의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텐아시아(www.tenasia.co.kr)에서 확인해주세요!
“연기도 열심히 해서 연기력을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신인이다 보니 한예준이란 아이가 있구나. 이것만 보여줘도 좋겠다.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는 연기를 해 나가면서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친구들이 날 연예인이라고는 생각 안 한다. 그런데 요새 예전만큼 연락을 자주 못 하니깐 벌써 변했느냐고 하면서 내 업사(업기사진)를 온라인에 다 올려버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난 또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고. (웃음) 나도 아직은 연예계로 들어왔다고 크게 느끼는 부분은 없다. 인스타그램(minjun1763)의 팔로우 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사람들이 조금 알아봐 주는구나’ 하며 혼자 흐뭇해지는 정도다. (팔로우 수가) 만 명 넘은 지 얼마 안 됐다.

마룬파이브랑 릴 웨인을 좋아한다. 마룬파이브는 2집에 실린 ‘원트 고 홈 위드아웃 유(Won't Go Home Without You)’ 때문에 알게 됐다. 어, 두 가수의 느낌이 많이 다르네. 하하. 내 노래 실력은, 친구들이 “넌 여자 앞에선 절대 노래 부르지 마”라고 하는 수준이다. 못 부른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듣기엔 좀 그랬나 보다. (일동 웃음) 임창정에 빙의해서 ‘소주 한 잔’이나 ‘날 닮은 너’를 부르면 다들 그렇게 말한다. 요즘엔 쿨의 ‘운명’이랑 성시경의 ‘두 사람’에 빠져 있다. 음원사이트에서 노래 리스트를 쭉 보다가 들어 보고 ‘어, 이 노래 괜찮네’ 싶으면 계속 듣는다. 최신 가요를 듣긴 하는데 옛날 노래를 더 좋아한다.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이 생애 첫 작품이다. 스무 살 천재 사진작가 하라온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는데, 살짝 시크하면서도 어둡고 차갑다. 예전에 사랑했던 여자가 삼촌 하연준(김민준) 때문에 자살하게 되면서 삼촌을 미워하는 캐릭터다. 그러다가 안채울(진지희)을 좋아하게 되고, 얼마 전에 대본 리딩을 했는데 아예 다 처음 접하는 상황들이라 긴장을 많이 했었다.

연기 레슨은 꾸준히 받고 있다. 연기 선생님이 내게 센스가 있으니 열심히 연습하면 크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 끼가 없지는 않은 것 같다. 하하. 맑은 배역이 사진작가다 보니 집에서 카메라를 들고 포즈 연습도 해보고 그런다. 그리고 감정 연기가 많아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챙겨 보고, 방에서 혼자 슬픈 노래 들었다가 신 나는 노래 들었다가 한다. 최근에 본 영화는 ‘안녕, 헤이즐’. 새벽에 불 다 꺼놓고 소파에 앉아서 보는데, 남자 주인공이 죽을 때 “(우는 시늉하며) 흑흑” 거리며 많이 울었다.

내년엔 실 틈 없이 바빴으면 좋겠다. 시간을 낭비할 바에야 (나를) 굴러줬으면 (관계자: 이 말 꼭 써주세요! 하하.) 나중엔 켈렁켈렁한 양아치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다. 류승범, 류승룡, 최민식 선배님처럼 연기파 배우 분들을 좋아하는데... 아, 멋있다 정말.

‘선암여고 탐정단’을 통해 이런 신인 배우가 있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괜 찰을 거 같다. 이번에 연기도 열심히 해서 연기력을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신인이다 보니 한예준이란 아이가 있구나, 이것만 보여줘도 좋겠다.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는 연기를 해 나가면서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뭐든지 열심히 해야지!





울(WOOL)



방모:울 80%, 램스울 15% 함유. 우수한 탄력성과 부드러운 촉감을 제공합니다. 소모:메리노 울 50%, 우수한 보온성과 드레이프성이 뛰어납니다.

적용복종:자켓, 바지, 스커트, 니트, 베스트

파이로클+노이시아



보온기능성 섬유 파이로클을 사용하여 땀과 수분을 신속히 배출하는 동시에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차단, 체온을 보호해줍니다. 또한, 식물성 원료로 만든 친환경 신축성 소재인 노이시아를 사용하여 착용감과 활동성이 뛰어납니다.

적용복종:와이셔츠, 블라우스

스트라이프배색



셔츠 안쪽 카라와 손목 부분에 아이비 스트라이프 원단을 덧대어 쉽게 때가 타는 것을 방지 합니다.

적용복종:와이셔츠, 블라우스

다리가 길어보이는 원리



슬림하면서 움직임이 편한 입체패턴을 적용하고, 무릎 선을 높여 다리가 길어 보이는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적용복종:바지

생각대로 바지



허리사이즈를 최대 8cm까지 마음대로 조절하는 원터치 슬라이드 후크로 허리에 꼭 맞는 스타일이 가능합니다.

적용복종:바지

IVYCLUB STYLE



IVYCLUB STYLE



은사 스트레치 안감



안감에 순은사의 효과로 **정전기, 항균, 방취 효과**와 스트레치 안감의 신축성까지 더해져 **실용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적용복종: 남녀 자켓

3D입체패턴



좁은 어깨, 가늘고 긴 소매로 보다 날씬하게, 3D 입체 패턴으로 어깨부터 허리까지의 라인을 잡아주어 **슬림핏**을 연출해줍니다.

적용복종: 여자 자켓

4방 파워 스트레치 원단



기존의 2방향 스트레치가 아닌 **4방향 스트레치**로 신체의 운동성향에 맞게 자유자재로 늘어나 **편안한 착용감과 활동성**이 뛰어납니다.

적용복종: 자켓, 바지, 스커트, 베스트

스커트 스트레치 안감



고탄력으로 **활동성과 편안함**을 높이고 **대전방지 가공처리**로 겨울철 **정전기 방지**에 탁월합니다.

적용복종: 스커트

슬림&환상라인 스커트



아이비클럽 슬림&환상라인 스커트의 **콘솔지퍼**라면 **실루엣도 살아나고, 뱃살까지 썩~** 들어가 보입니다.

적용복종: 스커트

※ 일부 품목 제외



명품학생복 브랜드

“아이비클럽”의

새로운 프리미엄 원복

“아이비클럽 키즈”



Cute
Pretty
Gorgeous

K I D S
IVYCLUB KIDS

아이비클럽 키즈는 소중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엄마의 마음을 담아....

1등 학생복 전문 브랜드 명성에 걸맞게 ‘생산’ 및 ‘품질관리’에 각별한 정성을 담은 회사!
“아이비클럽”에서 만든 프리미엄 원복입니다.



IVYCLUB KIDS

아이비클럽 키즈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아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내자녀의 품격과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아이비클럽 키즈는 ‘최고’를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한, 최고만을 고집하는 아이비클럽 키즈는 완벽한 품질관리를
위해 원단부터 봉제까지 모든제품이 국내생산됩니다. 전 제품 100% 국내생산!
학생복 브랜드 2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아이비클럽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이비클럽 키즈는 ‘활동성과 편안함’을 지향합니다.

호주산 메리노 울과 램스울, 친환경 소재인 노이시아, 천연 면섬유 등을 사용하여
기능성과 활동성을 높이고 학생복에 적용되는 3D입체패턴을 사용하여
인체 곡선에 맞는 완벽한 핏을 연출시킵니다.

CONCEPT



Concept 1 유러피안 감성

유럽 명문 귀족의 리치한 엘레강스를 바탕으로,
클래식한 라인에 현대적인 트렌드를 재해석한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패션

Concept 2 스포티

귀족적인 스포츠를 모티브로, 활동적이고 편안한 스포티한 디자인



Concept 3 큐티한 감성

오랫동안 강아지는 어린이들의 다정한 친구!
프랑스 국견 푸들의 귀족적인 외모처럼, 지혜롭고 영리하며
사람들을 잘 따르고 친숙한 이미지를 표현

Concept 4 엄마의 마음

소중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좋은것만 주고싶은
엄마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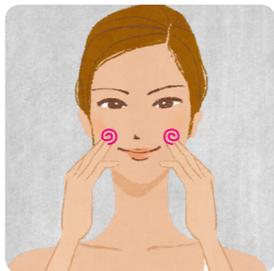


봄이 온다! 꽃처럼 피어나는 공주피부 만들기

손이 공공 발이 공공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온다! 사방사방 봄에 피어나는 꽃 같은 공주 피부를 위해 지금부터 셀프케어로 준비하자! 하루 5분이면 충분한 간단한 마사지를 소개할게. 따라 하면 피부 결과 톤이 Up Up!!



1.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을 귀 밑 림프에 비스듬히 대고 쇄골 중앙을 향해 천천히 쓸어내려 준다.



2. 검지, 중지, 약지를 광대뼈 아래 움푹 파인 곳에 대고 안에서 바깥을 향해 천천히 원을 그리듯 마사지한다.



3.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을 눈 아래에 지그시 눌러 지압한 뒤, 관자놀이 방향을 향해 원을 그리듯 마사지한다.



4. 미간을 양손 엄지의 지문으로 지그시 원을 그리며 눌러준다.



5. 양손 중지와 약지를 이마에 엇갈려 대고 안에서 밖으로 밀어준다.



6. 검지와 중지를 눈썹 뼈 옆 부분에 대고 가볍게 원을 그리듯 돌려준다.

겨울철 피부관리 tip tip TIP! ♥

1. 물 많이 마시기! 피부 갈증을 해소하기
2. 세안 후 수건 사용은 최소한으로! 한두 번만 톡톡 두드리자!
3. 맑고 촉촉한 피부를 위해 꼼꼼한 클렌징은 필수!
4. 맑은 피부를 위해서 충분한 수면 취하기



운병자리 (1월21일~2월18일)

다른 무엇보다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가족, 주변 친구들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기존의 일을 유지하면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에 있어서는 그간의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시기로 지난 시간의 노력만큼 재물이 따라 들어올 것입니다.

행운의 물건 : 머플러 / 행운의 장소 : 영화관 / 행운의 색상 : 주황

별자리로 알아보는 운세와 행운의 아이템!

나의 운세와 행운의 아이템까지 알 수 있는 별자리 운세!! 친구와 함께 서로의 행운 아이템을 알아보아요! 아이비클럽 친구들에게만 알려주는 꿀같은 정보~ ^^b

물고기자리 (2/19~3/20)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월 초에는 중요한 일이나 결정을 하고, 월 말에는 일보다는 충분한 휴식에 힘쓰도록 하세요.

행운의 물건:백팩 / 장소:버스터미널 / 색상:레드

양자리 (3/21~4/19)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나 친분을 쌓도록 하세요. 오랜만에 옛 동료나 친구에게 연락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 등이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잘 새겨들도록 해야 합니다.

행운의 물건:책 / 장소:식당 / 색상:네이비

황소자리 (4/20~5/20)

자신을 중심에 놓고 생활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변의 시선은 무시하도록 하세요. 개인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해도 자신의 이익부터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물건:티 백 / 장소:레스토랑 / 색상:옐로우

쌍둥이자리 (5/21~6/21)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성과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하세요. 자신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행운의 물건:우산 / 장소:마트 / 색상:블랙

게자리 (6/22~7/22)

그동안의 걱정이나 고민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기입니다. 안정적이고 순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의 시비나 구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행운의 물건:커피 / 장소:백화점 / 색상:그레이

사자자리 (7/23~8/22)

꿈과 희망을 갖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체계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를 세우면 중도에 힘이 꺾일 수 있습니다.

행운의 물건:손수건 / 장소:서점 / 색상:화이트

처녀자리 (8/23~9/22)

뒤편에 물러서서 나서지 않고 몸을 사리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가능하면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고집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또한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한 두 가지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물건:모자 / 장소:공연장 / 색상:그린

천칭자리 (9/23~10/22)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서는 여유를 갖고 시작하도록 하세요. 차분하게 한 해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적당한 휴식도 취하도록 하세요.

행운의 물건:립글로스 / 장소:체육관 / 색상:블루

전갈자리 (10/23~11/22)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으니 바쁘고 분주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몸도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쌓이기 쉬운 때입니다. 일이나 공부도 좋지만, 적절히 스케줄을 조정하도록 하세요.

행운의 물건:향수 / 장소:찜질방 / 색상:카키

사수자리 (11/23~12/21)

자신의 생활이나 모습에서 색다른 변화를 꾀해 보세요. 평상시와 다른 패션이나 머리 스타일이 행운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또한 이 달에는 자신과 잘 맞는 친구나 동료를 만나게 되는 때입니다.

행운의 물건:부츠 / 장소:미용실 / 색상:브라운

염소자리 (12/22~1/20)

새로운 공부나 기술을 배워보거나 취미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의 물건:티슈 / 장소:편의점 / 색상:바이올렛

다리가 기둥이 되어 주는 하얀색
이vy클럽



IVYclub 아이비클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3 트윈타워빌딩 A동 2F 080-527-7655 | 080-461-8881 | www.ivyclub.com

제작 아이코나츠 www.iconarts.co.kr